

고려대 창업기업 '에이올' 자체 공장 개소 서울시 캠퍼스타운 1호 '결실'

코로나19 상황서 더욱 주목
2017년 입주경진대회 입상
지난 3년간 창업공간 등 지원

서울시는 캠퍼스타운 1호인 고려대학교 안암동 캠퍼스타운에서 탄생한 창업기업 에이올코리아(이하 에이올)가 1100평 규모(200평 건물 2개 동)의 생산공장을 경기도 화성시에 개소한다고 6일 밝혔다.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이 생산기지를 준공하는 첫 번째 사례로, 에이올은 자체 공장을 통해 연간 16만대 이상의 제품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에이올은 제습·냉방·공기청정·환기 기능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 생산하는 복합에어솔루션 기업이다.

에이올이 지난해 자체 개발한 UV필터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평가에서 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유 바이러스를 97%, 부유 세균을 99% 이상 저감하는 성적을 받아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에이올은 2017년 안암동 캠퍼스타운 제3회 입주경진대회에서 입상하면서 서울캠퍼스타운에 들어오게 됐다. 지난 3년의 입주기간 동안 창업공간, 자금지원부터 창업기업 간 네트워크, 멘

토링, 판로개척 등 캠퍼스타운의 지원을 받았다.

서울시 캠퍼스타운에는 현재 34개 대학교 300여개 창업팀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G-local 안암 창업밸리' 조성사업이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최종 선정되며 새 도약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G-local 안암 창업밸리 조성을 위해 서울시는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486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성장단계별 창업공간을 만들고 우수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에이올의 자체 생산공장 개소는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탄생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이 공공의 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을 넘어 성장 단계까지 도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장애인지원주택.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올해 74호... 脫시설 새바람

신축아파트 첫 포함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 가속화와 자립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독립 생활을 돕는 '장애인지원주택'을 2022년까지 총 278호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공급하는 지원주택 물량 74호 중 30호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신축 아파트가 처음으로 포함됐다"면서 "장애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 탈시설의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애인지원주택은 지역사회내 자립을 원하지만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와 주택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8호가 공급돼 80명의 장애인이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시는 금년 74호 추가 공급으로 장애인 약 160명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입주 대상자는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의 장애인이다. 1주택 1인 거주가 원칙(공동 거주 가능)이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장애인지원주택 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알림서비스-공고 및 공지-게시판)를 참고하거나 SH공사 맞춤형주택부로 문의하면 된다.

아파트 거주 희망자는 이달 20~21일(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세대 주택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19~20일(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SH공사 별관 1층 맞춤형주택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지원주택은 탈시설 후 지역사회내 장애인의 안정적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선도적인 주거 정책"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주택을 공급, 당사자가 개인별 특성에 맞춰 주택을 선택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전남도와 손잡고 '공영시장도매인제'

지자체 공동 출자로 공공성 담보
경매 단계 줄여 유통비 약 8% 절감
양질의 농산물 적정 가격으로 공급

서울시는 전라남도도와 협력해 가락시장에 '공영시장도매인'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공영시장도매인 제도는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도매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가격과 생산량을 정하고 거래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가 시장도매인 법인 설립에 공동 출자해 공공성을 담보한다.

시는 "공영 도매인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경매 단계가 없어져 유통비용을 약 8% 절감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은 농민과 유통인 간 출하량 조절로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돼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제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전액 적립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가락시장 개장 이래 35년간 이어져 온 경매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전남도청 전경

정착에 기여했지만, 당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특히 거래 당사자인 농민이 가격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그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공영 도매인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2023년 완공 예정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도매권 1공구(채소2동)에

공영시장도매인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전라남도도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전남형 시장도매인제 운영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완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폐지

서울시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제도인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돕기 위해 서울시가 2002년 5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4월부터는 1인 가구 기준 월 8만원을 지원해 왔다.

시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민간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을 종전 '9500만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소득·재산 기준으로 실제 월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을 따지던 방식을 없앴다.

앞으로는 소득이 1인 기준 106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은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억6000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자동차는 가구당 1대 이하로 소유해야 한다.

시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와 물가 수준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주택바우처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다.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김현정 기자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검거

서울시, 성범죄 피해구제 지원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가 경찰과 협조해 가해자 3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지원서비스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작년 9월부터 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적발된 가해자들은 10~20대 초반의 남학생들로 게임,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온라인 공간이 가진 익명성을 이용해 정서적 지지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유인,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벌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n번방 사건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유인해 사례금을 주며 성 착취물

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엔 온라인 접속 시간이 많은 아동,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주고 사진과 영상물을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방식으로 범죄양상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시는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접수한 뒤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지원 및 법률·소송지원 등 전 과정을 함께하며 가해자 검거를 이끌어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0월 7일 (수)
음력 : 8월 21일

수도권 날씨
11 ~ 22°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6:33 해질 / 18:06

연천 6/21
동두천 7/21
가평 6/21
파주 7/21
서울 11/22
양평 7/21
인천 12/21
수원 10/20
용인 10/20
평택 7/2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